



식물과 사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감상문

소프트웨어학부
20152791
강길웅

“무소부재(無所不在)”

“ 어느 곳이든 존재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본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하느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있다는 의미로 이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고 든 저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고사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삶 어느 곳이던지 나무가 없었던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터, 청년 시절에서의 경제적 수입원,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가며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소년의 삶과 우리는 많이 닮아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제공받기 위해 나무와 식물들을 이용하고 있죠. 현대시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에는 식물이 전혀 이용되거나 재료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확실할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종이에서부터 각종 전자기기들도 제조과정에서 연료나 재료 등의 명목으로 식물이 이용되며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것은 식물의 이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식물이 녹아 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며 식물에 대한 일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뉴스로 호주 산불이나 국내 산불 등의 기사들을 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나무의 벌목에 대해 많은 문제를 삼는다는 기사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구잡이로 종이를 사용하며 연료를 이용하고, 숲을 개간하여 건물들을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우리에게 비단 재료나 연료, 제품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나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식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동물 더 나아가 인류에도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과 함께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덜 스트레스 받으며 전체적인 인성 지수가 좋게 나타나는 결과¹를 통해 알 수 있듯, 식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식물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며 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¹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식물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2009), 김재호, 경인교육대학교 발췌